

애플 언어·소리로 떠나는 문학여행

ACC 도서관 도서추천서비스
7~8월 주제 '애플 소리와 언어' 선정
국내외 산문·소설·인문서 등 소개



"겨울을 들여다볼 때 당신이 보는 건 그저 당신 얼굴이 아니라 일종의 박물관을 보고 있는 셈이다."

하트워 대학의 인류학과 교수인 데이비드 W. 앤서니의 저서 '말, 바퀴, 언어'의 첫 문장이다. 저자는 중앙아시아 초원의 선사 시대 사람들이 인도-유럽 공통조어의 원래 사용자였다는 것을 밝힌다. 특히 전차가 어떻게 유라시아 초원을 교통과 문화가 교류되는 지역으로 변모시켰는지를 주목한다.

아시아 문명은 서쪽의 페르시아부터 인도, 중국,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고유한 언어문화를 꽃피웠다. 이 문명권에는 동북아의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어,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크어, 서아시아의 페르시아어와 아랍어 등이 있다.

아시아의 언어와 소리를 다채롭게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이 ACC 도서관 도서추천서비스(북큐레이션) 7~8월 주제를 '아시아 소리와 언어'로 정했다.

'언어 문명의 변동'에서는 우리의 언어와 소리의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근대 초기 신소설을 비롯해 신문기사, 연설문 등을 토대로 언어와 소리가 시대의 변화 산물이며 문화와 관습을 오롯이 담



ACC 북 큐레이션 공간.

(ACC 제공)

아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ACC는 휴가철을 맞아 책과 함께 떠날 수 있도록 다양한 책도 소개한다.

소설가 김연수의 '언젠가, 아마도'는 4년 넘게 여행 잡지에 연재해 묶은 산문집이다. 그의 글은 여행을 통한 다양한 생각거리를 담고 있어 잔잔한 여운을 준다.

"조직은 인간을 난쟁이로 만든다는 것, 고독은 우리의 성장판이라는 것,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해야 할 일을 할 때 인간은 자기보다 더 큰 존재가 된다는 것. 비록 나는 안중근의 손가락을 찾지 못했지만, 그의 여정이 내게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잡지 '킨포크'가 펴낸 여행 에세이 '킨포크 트레

블'은 서울, 파리, 뭄바이 등 '도시'편을 담고 있다. 이란의 스키장과 런던의 조류 관찰 등을 담은 '야생'편 등에서 세상을 향한 새로운 시선을 만나게 된다.

이밖에 제임스 조이스와 더블린을 비롯해 J.D. 셀린저와 소설무대로 떠나는 세계 여행 '문학이 좋다 여행이 좋다'도 여름날 무더위를 잊게 해 줄 좋은 친구이기도 하다.

한편 이강현 전당장은 "아시아 언어와 소리"는 오늘날 아시아를 이루고 있는 문명의 다채로운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책들로 구성돼 있다며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책을 매개로 아시아와 문화를 느끼고 여행의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원중의 달거리' 10년 여정 마침표

시민과 음악 동행 올해 마무리
17일 공연...예술가들 함께 무대
연말까지 매월 넷째주 월요일 공연

평화와 인권, 광주에 대해 노래해 온 '김원중의 달거리'가 10년 발자취에 마침표를 찍는다.

김원중은 2003년부터 10년 넘게 다양한 아티스트와의 콜라보 공연을 선보여 왔다. 이번 무대는 광주시민들과 10년간의 음악 동행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특별한 자리다.

올해 첫 공연은 오는 17일(오후 7시 30분) 광주 음악산업진흥센터 피크뮤지홀에서 열리며, 12월 까지 매달 넷째 주 월요일마다 진행될 예정이다.

무대를 이끄는 김원중은 1984년 '바위섬'으로 데뷔했다. 그동안 '직녀에게', '꿈꾸는 사람만이 세상을 가질 수 있지', '5·18광주 30' 등 30여 장의 앨범을 발표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달 무대는 태종 2년(1402년) 조선에서 제

작된 '강리도'를 주제로 펼쳐진다. 정식 명칭으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라 불리는 이 지도는 우리나라에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을 그린 세계지도로 역사적 가치를 갖고 있다.

무대에서는 강리도의 웅장한 기개를 담아낸 김원중의 신곡 창작발표회가 예정돼 있다. 또 '1402 강리도'를 펴낸 김선홍 작가를 초대해 관객들과 만나게 된다.

아울러 샌드에니메이션 작가 주홍, 우물안개구리, 루트머지, 리디안 팩토리과 박성언 밴드, 프롤로그, 화가 한희원, 사진작가 리일천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올라 공연의 풍부함을 더한다.

'김원중의 달거리'의 주역이 되었던 예술가들도 무대에 함께한다. 김원중과 느티나무 밴드, 소프라노 유희민, 바다프로젝트 등이 출연해 10년간의 여정에 종지부를 찍는다.

입장료는 공연장에서 모금 방식으로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김원중의 달거리 측 문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참을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밀란 쿤데라 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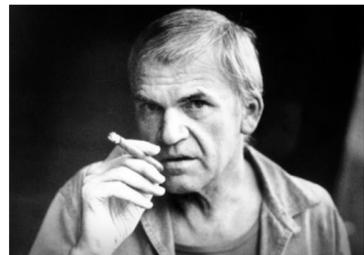
프랑스로 망명한 체코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 밀란 쿤데라(사진)가 별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2일(현지시간) 현지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다.

체코 공영방송은 쿤데라가 이날 향년 94세 일기로 별세했다고 전했다.

쿤데라는 공산체제였던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교수 등으로 활동하면서 소설 '농담'과 희곡 '열쇠의 주인들'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알려졌다.

1968년 민주화 운동인 '프라하의 봄'에 참여했던 쿤데라는 저서가 압수당하고 집필과 강연 활동에 제한을 받는 등 고초를 겪었다.

쿤데라는 결국 1975년 공산당의 탄압을 피해 프랑스로 망명했고, 1979년 체코슬로바키아 국적을 박탈당했다가 지난 2019년에서야 국적을 회복했다.



1984년에는 대표적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썼다. 이 작품으로 명실공히 세계적인 작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연합뉴스

'광주수필' 77호 나왔다

장정식·김영자 작가 등 작품 실려

광주수필문학회가 발행하는 동인지 '광주수필' (2023 상반기·통권 77호)이 나왔다.

이번 호 '초대수필'에는 조연현(1920~1981)의 '수필을 쓰려면'이 게재됐다. 조 수필가는 초기에는 시를 창작했지만 후에 평론과 수필을 주로 썼다. 청년문화협회를 결성해 순수문학의 융화를 주장했으며 후기에는 현대문학사 정립에 힘썼다.

이번 호 회원 작품으로는 장정식, 김영자, 오덕렬, 박태영, 김용하, 이정선, 황옥주, 이춘배, 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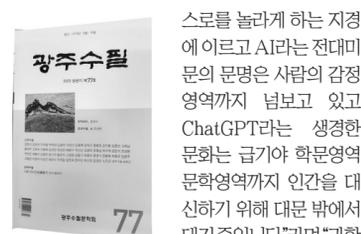
관, 박인순, 윤소천, 황경자, 윤영식 수필가 등의 작품이 실렸다.

임회회원 수필로는 김영순(고기 굽는 셋째 아들의 손), 노진근(겨울, 여름, 그리고...) 수필가의 작품이 수록됐다.

황옥주 수필가는 사토 아이코의 '치미는 분노의 고독'을 번역했다.

이밖에 책에는 2022년도 광주수필 제76호 출판 기념회 및 총회, 회의 등 활동이 사진으로 실렸다.

한편 윤영식 광주수필문학회 회장은 "우리 인류가 간단없이 내달려 발달시킨 과학 문명은 인류 스



스로를 놀라게 하는 지경에 이르고 AI라는 전대미문의 문명은 사람의 감정 영역까지 넘보고 있고 ChatGPT라는 생경한 문화는 급기야 학문영역 문학영역까지 인간을 대신하기 위해 대문 밖에서 대기중입니다"라며 "과학이 아무리 기승을 부린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전원범 문학 전집은 시 325편이 담긴 '망초꽃으로 서서', 시조 214편으로 구성된 '선운사 동백꽃', 동시 281편을 수록한 '둥근해를 공굴리며' 그리고 대표작을 엄선한 '전원범 문학선 99' 등 총 4권이다. 전 시인은 1960년대부터 동시도 시가 꽤야 한다고 선구적으로 주장하고 '동심의 시'라는 개념을 정립해 오늘날 동시의 수준을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 (연합뉴스) 2023. 4. 27.

그의 시론을 압축하면 '시는 어렵지 않아야 한다. 시는 일상의 말이 아니다. 시어는 시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해석된 말'이라는 주장이다. - (뉴스 1) 2023. 4. 29.

'해의 시인'이라는 별칭은 그가 발표한 연작시 '해'에서 비롯됐다. 모두 70여 편을 썼고 해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형상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광주일보) 2023. 4. 26.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둥근 해를 공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작품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